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보도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주체112(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행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신행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하여 발사후 705s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정찰위성발사는 자위권강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이며 적들의 위협천만한 군사적준동으로 나라와 주변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정찰위성발사를 참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장 장창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찰위성발사를 참관하시고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제고함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련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발사하여 남조선지역과 공화국무력의 작전상관심지역에 대한 정찰능력을 계속 확보해나갈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1월 22일 오전 10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하시고 궤도에 진입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작동상태와 세밀조종진행정형, 지상구령에 따른 특정지역에 대한 항공우주촬영진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동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김정은원수님께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7~10일간의 세밀조종공정을 마친 후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국가가 자체의 힘과 기술력으로 항공우주정찰능력을 키우고 끝끝내 보유한것은 공화국무력의 발전에 있어서나 새로운 지역군사정세국면에 대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의 강군현대화건설사업에 실천적성과로 이바지한 우주과학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헌을 다시한번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1월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지역 팜상공에서 앤더슨공군기지와 아프라함 등 미군의 주요군사기지지역을 촬영한 항공우주사진들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위력한 군사적라격수단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자체방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정찰위성들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제삼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제가 어제와 오늘 런 이를 남조선지역에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핵추진잠수함 《싼라페》호를 끌어들이며 남조선지역을 저들의 침략무력의 전방기지로, 핵병기창으로 만들어가고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처럼 지역의 군사정세를 위태하게 하고있는 미제와 그 추종군대의 행동성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장악하는 문제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이미 천명함대로 다양한 정찰위성들을 더 많이 발사하여 궤도에 배치하고 통합적

로, 실용적으로 운용하여 공화국무력앞에 적에 대한 가치있는 실시간정보를 풍부히 제공하고 대응태세를 더욱 높여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남조선 및 태평양주변지역에 대한 당면한 항공우주정찰능력조성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 제출하려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제의를 승인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정찰위성발사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찾으시여 정찰위성발사성공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1월 23일 정찰위성발사성공으로 공화국무력의 전투태세와 자위력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가 제시한 공화국무력현대화의 선결중대과업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쟁취한 우주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따듯이 축하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정찰위성의 보유는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과 발전리익,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억척으로 지키며 적대세력들의 각양각태의 위협천만한 침략적행동들을 주동적으로 억제하고 통제관리해나

가 할 우리 무력에 있어서 추후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사에 영웅적인 개척과 비약적인 발전의 상징어로, 대명사로 빛나는 《천리마》명칭을 새긴 우리의 신형운반로켓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도래한 우주강국의 새시대를 예고하며 솟구쳐올랐다고 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기도와 준동을 상시장악하는 정찰위성을 우주의 감시병으로, 위력한 조준경으로 배치한 경이적인 사변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당의 구상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만드는 우주과학전사들의 열렬한 애국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이 안아온 값비싼 승리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당대회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더욱 분발하여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항공우주정찰능력조성의 당면목표와 전망목표를 향해 기세차게 총매진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성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1월 23일 첫 정찰위성 발사사업을 이끈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성원들을 만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특출한 정도로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강력히 인도하시며 부국강병의 진성기를 펼쳐나가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시고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성공적발사로 공화국무력의 전투태세를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가 응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데 대해 높이 치하하시었다.

항공우주기술발전전망계획들을 빛나는 현실로 전환시키는데서 나서는 단계별목표와 그 실행방도에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관록있는 주요대학과 연구기관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들로 무어진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의 전체 성원들이 우리 당의 우주산업건설방침을

철저히 옹호하여 우리 국가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급진전시키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앞으로도 새로운 성과를 다련발적으로 이룩해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사랑과 믿음의 화복을 남기시었다.

본사기자

정찰 위성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연회 진행

정찰위성 《만리경-1》호발사성공을 경축하여 11월 23일 저녁 목란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명의로 마련한 연회가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빈으로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녀사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격정으로 충만된 만세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내각총리는 조선인민군이 운용할 첫 정찰위성발사를 기어이 성공시켜 우리 혁명무력에 우주정찰자산이라는 귀중하고도 위력한 보검을 선물하였으며 조선로동당의 주체적군사전략실현에 크게 기

여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진정어린 감사와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성공적으로 좌출린 정찰위성 《만리경-1》호로 하여 공화국무력의 군사활동행정에는 전혀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전지구권타격능력을 보유한 우리 군의 위력이 명실공히 세계최강급으로 장성강화되게 되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국익사수와 국권수호를 위한 창조전에 운명을 걸고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온 우주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의 헌신과 더불어 력력히 안겨오는 혁명의 전취물이며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조국의 전략적재부인 우리의 첫 정찰위성에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과 장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내각총리는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강군건설업무를 높이 받들고 정찰위성을 자기의 힘과 기술로 좌출려 공화국의 존엄과 국위를 만방에 떨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공적은 청사에 길이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면서 주체조선의 우주정복의 원대한 꿈을 즐기게 실현해나갈 결의를 안고 축배를 들었다.

본사기자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성명

우리의 정찰위성발사는 날로 우려 비논리적인 억지로 우리의 정찰위성 데기로 된지 오래다. 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을 방지 정치군사경쟁무리들이 범한 돌이킬수

스리워지는 조선반도주변에서의 적들 발사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위 적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발사를 천명한다. 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조치들을 없는 실적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의 각이한 군사적행동들을 엄밀히 감 반》이라고 고아대면서 구실이 없어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 1.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철회하고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되었다.

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기다린듯 꺼리낌없이 합의서의 일부 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린것은 9. 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 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도를 넘은 적들의 반공화국대결광

자위권에 해당하는 조치이며 합법적이 조항효력정지를 발표해치웠다.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되지 않을것이다. 배치할것이다. 기로 하여 조성된 군사적긴장상태는

며 정당한 주권행사이다.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의 위협성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 3. 북남사이애 돌이킬수 없는 충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있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군사강 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정신 에 대한 불안전조조한 심리의 반영이다. 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들사래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핵전쟁영역력강화와 무력현대화사업

패무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전면도전하여 각종 군사적도발을 《대한민국》것들은 현정세를 통제 《대한민국》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것 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의 합법적권리에 대하여 유엔《결의》 전방위적으로, 립체적으로, 계단식의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 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야 한다는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대치 공화국무력은 항상 압도적이며 공

위반, 《불법행위》라고 선창해대면서 로 확대해은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 2.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 상래가 지속되고있으며 사소한 우발 세적인 태세를 견지하고 적들의 대결

국단한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국》속속들이다.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하였던 모든 군사적조치들을 즉시 적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 광기를 주시할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 하였던 모든 군사적조치들을 즉시 으로 확대될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 주체112(2023)년 11월 23일

긴급회의와 《국무회의》를 련이어 벌 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 19북남군사 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복할것이다. 으로 확대될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 주체112(2023)년 11월 23일

러놓은 역도들은 명분도 서지 않는 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껍 국방성은 벌어지고있는 사태에 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사분계선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평 양

새 문명창조로 추동한 뜻깊은 2023년

— 올해 공화국에서 진행된 여러 전시회와 축전을 돌이켜보며 —

백한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뜻깊은 올해에 공화국에서는 여러 전시회와 축전, 전람회, 발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어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그를 통하여 공화국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 특출한 령도와 크나큰 은정속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진일보가 이루어지고 우리 식의 멋과 향기가 새시대에 부응하는 문명발전을 선도하며 나날이 개화되고있는 현실을 가슴벅차게 새겨안았으며 강국의 힘찬 전진보폭과 뚜렷한 발전상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많은 기술을 습득할 때 과학기술 강국, 경제강국건설이 앞당겨진다 는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특색있고 다양한 인민소비품들

인민들에게 보다 윤택하고 문명해질 데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며 나라의 경공업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도약대로 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이 준 여론 또한 자못 깊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경공업부문사업을 중시하시며 그 발전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10여년간 대단한 도약과 뚜렷한 전진을 이룩한 경공업의 발전면모를 증시높이 보여주는 전시회에 대한 참관자들의 관심은 대단하였다. 전국의 수백개 단위가 참가하여 피복류, 신발류 등으로부터 인민생활의 세부적인 요구를 반영한 산전시대로는 첨발파방범의 하나인 비전기식 《불꽃》기복체계에 대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느한 단위에서 내놓은 산화막절연라무미니 용선에 대한 일군들과 전문가들의 관심도 매우 컸다. 참가자들은 《기다리는 기술입니다. 빨리 도입하고싶습니다.》, 《이런 과학기술활동을 자주 조직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번이 아니다. 제17차 국가발명전람회,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공전시회, 전국기복공업부분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대회, 《전국보건부분 과학기술성공전시회-2023》, 전국대학생정보화만 놓고보아도 여러 부분의 나노기술응용연구성과들과 나노재료

단위에서 만든 공예품들과 이불, 담요, 내의류를 비롯한 뽀시있고 특색있는 제품들을 보여 참관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전시회장의 2층에 전개된 지능형 손전화기전시대에서는 《외형도 멋있고 기능도 우월하다. 특히 이름부러가 우리의 생활과 너무도 친숙한것이어서 더욱 마음이 끌린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조선의 국수인 《소나무》, 찬서리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봄소식을 알리는 《진달래》, 조선민요의 상징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민요 《아리랑》 등의 이름을 단 수십가지나 되는 지능형손전화기들중에서 어느것을 골라잡을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전시회장을 짙게 채운 각종 인민소비품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한결같이 《나날이 비약하는 우리 경공업의 눈부신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할수 있었다.》, 《우리 경공업의 잠재력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탄복해마지 않았다. 올해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누구나 즐겨 찾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전시회들이 진행한 평양제1백화점과 평양역전백화점, 평양지하상점을 비롯한 백화점들과 상점들이었을것이다.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이 짙게 채워진 전시회장의 곳곳에서 우리는 지난 전시회들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던 제품들을 다시 보고싶어 찾았는데 더 훌륭한 제품들을 안고간다고,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달라고 부탁

하는 인민들의 기쁨넘친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출품된 제품들이 많고 그 질적수준이 하나같이 높아 어느 단위의 제품이 우수하다고 쉽게 단정할수 없다고 난처해하는 심사위원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다.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3》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도 대단하였다. 이곳을 찾은 대성구역의 한 주민은 지난 시기에도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올해처럼 지방의 원료원천과 한것이어서 더욱 마음이 끌린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3》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도 대단하였다. 이곳을 찾은 대성구역의 한 주민은 지난 시기에도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올해처럼 지방의 원료원천과 한것이어서 더욱 마음이 끌린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3》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도 대단하였다. 이곳을 찾은 대성구역의 한 주민은 지난 시기에도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올해처럼 지방의 원료원천과 한것이어서 더욱 마음이 끌린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3》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도 대단하였다. 이곳을 찾은 대성구역의 한 주민은 지난 시기에도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올해처럼 지방의 원료원천과 한것이어서 더욱 마음이 끌린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을 들이 때 발전하는 시대에 따라 설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것을 안겨주어 문명의 질정에 내세워주고싶어하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이런 뜻깊은 전시회들이 해마다 성황리에 진행되고 그와 더불어 인민생활이 나날이 유쾌해지고있다고 깊은 감동속에 이야기하였다. 올해에 진행된 신발전시회를 통하여 찾아보게 되는것도 매 단위들에서 생산한 신발제품들의 질이 비약적으로 개선된것이었다.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내부배비,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 등을 동원리용하여 만든 갖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이 차고넘치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출품된 가치와 참관자수를 보아도 이번 전시회의 생활력에 대해 잘 알수있다고 말하였다. 지방공업성의 한 일군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기 위해 품

전국의 피복제품생산단위들을 비롯하여 경공업제품을 생산하는 320여개의 단위들에서 내놓은 27종에 8만여점의 가을철과 겨울철 너셋옷, 남셋옷, 어린이 옷과 민속옷들이 전시된 《가을철피복전시회-2023》 전시회장으로 매일과 같이 각계층의 수많은 참관자들이 찾아왔다. 피복공업을 발전시키자면 옷전시회를 자주 하여야 한다시며 전시회장소로부터 전시품의 가치수와 비를, 참가단위와 심의, 자체모장에 이르기까지 해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황리에 진행된 피복전시회들을 통하여 참관자들은 한결같이 《당의 은정속에 나날이 개화하는 우리 식의 새 문화, 새 문명에 대한 긍지를 더욱 깊이 새겨들었다.》, 《우리의 옷차림문화가 제일이다!》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과학기술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새 문명창조에도 힘입어 추동하며 뜻깊은 올해에 진행된 여러 전시회들과 축전, 발표회들을 돌이켜보며 공화국인민들은 보다 새롭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희망찬 데일을 크나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 그려보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마련한 소중한 모든 재부들과 더불어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자랑찬 모습에 그리고 나날이 꽃피어나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속에 우리 식의 새 문화, 새 문명이 비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보다 눈부실 데일을 앞당겨갈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는 문명의 재부들과 더불어 인민들의 생활은 보다 환희롭고 공화국의 앞길은 더욱 휘황찬란할것이다. 본사기자 홍복식

폭넓은 과학기술교류마당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소개하며 서로 공유하는 사업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올해에 진행된 과학기술축전과 여러 발표회 등은 연구성과의 공유, 이전을 적극화하는것이아말로 새로운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는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준비단계부터 그 폭과 규모가 확대된 제36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아말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과학기술교류활동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매우 컸다고 말하고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제한된 단위들만 참가하던 지난 시기의 편향을 극복하고 어느 부문, 어느 단위나 할것없이 참가하여 연구성과와 기술을 적극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광범한 과학기술교류마당, 토론과 론쟁마당으로서의 과학기술축전의 실효를 높일수 있게 하였다.

얼마전에 《나노기술에 기초한 공업창설추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국나노기술부분 과학기술전시회만 놓고보아도 여러 부분의 나노기술응용연구성과들과 나노재료

제조, 나노 및 마이크로가공과 나노측정 및 분석방법연구, 나노과학기술부분의 기초이론 및 모든 기술연구에서 이룩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과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는데로 지향되었다.

정보산업부분과 금속, 화학, 기계, 농업, 전력 및 에너지, 경공업, 보건부분 등의 300여개 단위가 참가하여 진행된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3》에서도 선진과학기술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려는 열의가 매우 높았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 선전광산전시대로는 첨발파방범의 하나인 비전기식 《불꽃》기복체계에 대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느한 단위에서 내놓은 산화막절연라무미니 용선에 대한 일군들과 전문가들의 관심도 매우 컸다.

참가자들은 《기다리는 기술입니다. 빨리 도입하고싶습니다.》, 《이런 과학기술활동을 자주 조직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번이 아니다.

제17차 국가발명전람회,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공전시회, 전국기복공업부분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대회, 《전국보건부분 과학기술성공전시회-2023》, 전국대학생정보화만 놓고보아도 여러 부분의 나노기술응용연구성과들과 나노재료



인민이 정권의 주인된 나라

공화국에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의 날을 하루 앞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선거장으로 달리고있다.

《우리 48호선거구에 구역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된 김광희소장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중추역가노동사업소 소장으로직장에서는 물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함으로써 하여 사람들과서 훌륭한 일군으로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시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된 오성철 평양지상점 부경리도 이번엔 유권자모임에 참가하였는데 그의 경력을 들어보니 정말 일을 많이 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나를 공부시켜 대학생으로 내세워준 이 고마운 조국에 보답할 애국의 마음으로 선거에 참가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하여 각종 선거가 매해 진행되고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정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있다.

그것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대중을 현혹시키는 각종 거짓공약들을 랍발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선거가 국가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며 밝은 미래를 안아오는 중요한 정치적행위로 되고있기에 누구나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당일에 애국의 한마음으로 투표에 참가하는것이이다.

장구한 인류력사의 오랜

기간 인민은 지배와 억압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오늘도 세계는 1%의 가진 자들을 위해 99%의 인민들이 억눌러오고 빼앗기고 희생당하는 어둠에 잠겨있다.

우리 인민도 오랜 세월 봉건의 질곡에서 허덕이다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후에는 망국노가 되어 온갖 천대와 멸시, 학대를 당하며 비참한 삶을 강요당해야 했다.

그러던 것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자국의 나라, 빛의 나라를 세우신 때로부터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

일제기 항일의 나날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인민혁명정부건설에 구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정권건설로선이 있어 해방후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새형의 첫 인민정권이 태어날수 있었다.

지금도 력사적인 가야허유 지역의 사수평야에서 뜻깊은 인민혁명정부 위원회대표를 선출하는 모임을 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신 뜻깊은 연설의 구절구절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고있다.

인민혁명정부는 어느 인금이 다스리는 정권이 아니라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서 인민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정권이라고. 이 정부는 지주나 자본가나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정권이라고 교시하신 위대한 수령님.

피어린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창조하신 인민정권건설의 빛나는 귀감, 유격구인민 누구나 지지하고 받들었던 새형의 인민정권을 해방후 새

조국당우에 현실로 펼쳐주신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어제날의 부덕데기, 어제날의 머슴군이 나라의 주권기관 대의원으로, 막별이군로동자가 국가기관의 장으로 되는 놀라운 현실이 이 땅우에 펼쳐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정권건설로선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어온 인민정권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이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이시다.

자주적권위병이 되느냐, 또 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준엄한 력사의 갈림길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여 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대로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주시고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공화국을 위한 절대불변의 의지이다.

정녕 대를 이어 절대위인을 높이 모시었기에 공화국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나라로 민방에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공화국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휘황한 설계를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것은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이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출구차고 완강한 투쟁속에 수도 평양에 송화거리와 보통강간안다락식주래크, 화성거리를 비롯한 행복의 별천지들이 연해 연방 일떠서 인민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넘쳐흐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지방특유의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속에 나라의 판매체제를 완벽하기 위한 사

업에서 소중한 성과가 기록되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이며 능률높은 농기계바다가 펼쳐져 농촌진흥의 새로운 력사가 수놓아지고있다.

또한 나라의 경제를 상승케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힘있게 전개되고 인민생활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더 정성을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려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드림없는 신념에 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젖혀줄 정성적으로 공급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온 나라 학생들에게 멋진 새 교과과 과목, 학습용품을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도 취해지게 되었다.

인민의 영원한 존엄과 안녕을 위한 국가방위력강화에서도 비약적성과들이 달성되어 우리 공화국은 절대적힘을 지닌 초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참으로 공화국정권이야말로 인민들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고 사는 위대한 삶의 품,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 헌신으로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끊임없는 비약과 전진을 이룩해온 나날 공화국정권을 따르는 길에 참다운 삶과 행복이 있는것을 더욱 심장으로 걸감한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이번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자기의 체도와 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질 것이며 애국의 한포를 바친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태양을 향해 더욱더 힘있게 전진해갈 것이다.

권이라는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저작들과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인민을 위해 복무해나가는데 나서는 강령적지침들을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그이께서 정권기관들이 인민을 철저히 보호하고 보살피는것을 제일가는 본분으로 자각하고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시 가르치심들은 그 얼마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뜻깊은 가르치심들마다에 세차게 맥박치고있는것은 바로 인민을 하늘처럼 신성하게, 더 높이 떠받들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게 하시는 절대불변의 의지이다.

정녕 대를 이어 절대위인을 높이 모시었기에 공화국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나라로 민방에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공화국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휘황한 설계를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것은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이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출구차고 완강한 투쟁속에 수도 평양에 송화거리와 보통강간안다락식주래크, 화성거리를 비롯한 행복의 별천지들이 연해 연방 일떠서 인민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넘쳐흐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지방특유의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속에 나라의 판매체제를 완벽하기 위한 사

첫 민주선거의 날에

주제35(1946)년 11월 3일 북조선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평양시 제6호선거구 제52호분구에서 평양전기공장(당시) 열관리공에게 투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선거분구위원회 일군들과 선거자들에게 오늘 선거는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것만큼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자신의 손에 의하여 창건되어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나라가 해방되어 처음으로 진행된 민주선거의 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 교시는 우리 정권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밝힌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평양시 제6호선거구 제52호분구에서 평양전기공장(당시) 열관리공에게 투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선거분구위원회 일군들과 선거자들에게 오늘 선거는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져주시여

주제76(1987)년 11월 15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평성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2호선거장을 찾으시여 투표에 참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성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과학원(당시) 열광연구소 실장을 친히 만나주시 자리에서 과학연구소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인민주권기관 일군으

로서 인민의 총복담게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의원후보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주권기관 일군의 책임과 본분을 자각하고 인민의 총복이 되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하자고 고무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성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과학원(당시) 열광연구소 실장을 친히 만나주시 자리에서 과학연구소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인민주권기관 일군으

사랑의 당부

주제104(2015)년 7월 19일 온 나라 인민의 크나큰 관심속에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날 평양시의 어느 한 선거장을 찾은 대의원후보자를 몸소 만나주시였다. 그 영광의 자리에는 한 여성로동자도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앞에 몸둘바를 몰라하는 여성 대의원후보자에게 처녀시절부터 30년간을 무궤도전차운전사로 일하셨다는데 한직종에서 오래동안 일하셨다고 하시면서 동무는 인민의 대표로서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회주의의 내 나라를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일을 더 잘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여성로동자는 기쁨과 행복의 눈물로 두눈을 적시였다. 이윽고 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를 받으시고 투표에 참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투표장밖으로 나오시여 또다시 대의원후보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앞으로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라 바란다는 사랑의 당부를 남기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성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과학원(당시) 열광연구소 실장을 친히 만나주시 자리에서 과학연구소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인민주권기관 일군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

주제112(2023)년 11월 26일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의 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평양시 제6호선거구 제52호분구에서 평양전기공장(당시) 열관리공에게 투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선거분구위원회 일군들과 선거자들에게 오늘 선거는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본사기자 주일봉

주체건축발전에 깃든 탁월한 령도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주제 102(2013)년 11월 26일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당시)을 찾으시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포부와 리상을 심어주시고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신 날이다.

이날 그이께서는 학생들은 당이 구상하는 사회주의문명국설계도를 자기들이 작성한다는 자각과 건축분야에서 우리 나라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계가들을 압도하였다. 야심만만한 포부와 꿈을 안고 학업에 열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생들은 설계실에서 문명국의 레일이 그려진다는것을 명심하고 시간을 아껴가며 배우고 또 배우어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시대는 재능있는 설계가, 건축가들을 키우는데 있어 평양건축대학을 찾았으며 대학을 건축부문의 학술, 정보, 자료봉사, 원격교육의 중심지기로 꾸리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아래 지난 10년간 수많은 건축과학기술인재들이 자라나 오늘 대건설투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있다.

재능있는 설계가, 건축가들을 키우는데 있어 평양건축대학을 찾았으며 대학을 건축부문의 학술, 정보, 자료봉사, 원격교육의 중심지기로 꾸리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아래 지난 10년간 수많은 건축과학기술인재들이 자라나 오늘 대건설투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있다.

재능있는 설계가, 건축가들을 키우는데 있어 평양건축대학을 찾았으며 대학을 건축부문의 학술, 정보, 자료봉사, 원격교육의 중심지기로 꾸리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동에서는 커다란 질적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인류는 오늘날까지 건축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건축형식과 내용을 부단히 혁신하여왔다.

또한 건축설계에서 류사성과 반복을 피하고 건축물들을 대상별 특성과 용도, 수송능력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특색있게 건설할데 대한 문제, 지방건축설계에서 해당 지방의 얼굴이 나타나도록 다양하고 독특하게 하며 특색 건축으로 나아가는 세계건축발전 추세에 맞게 건설대상을 생태 환경을 좋게 하고 주변환경과 친화적 하는 원칙을 비롯하여 나라의 건축을 세계적수준에서, 공화국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법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 땅에 일떠서는 건축물들은 어느것이든 다 최상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하시며 모든 건축물들의 형성안을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지도해주시며 실험과 로고를 바쳐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러시고도 건설현장을 찾기도 하시며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

우선시되어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에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이 땅우에 얼마나 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던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평양음악원과 예술원, 평양양로원, 과학기술전당, 리명거리, 미려과학자거리, 경루동, 송화거리, 화성거리, 산간도시의 표준 삼지연시,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노래하며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는 농촌문화주택마을들, 현포은실농장, 증평은실농장, 류경안과종합병원, 옥류아동병원, 보건산소공장, 평양방공기지, 통안산비누공장,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

그 어느것이든 다 자기의 특색을 살리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한복의 그림을 방불케 하거나 선려성, 선미학성이 철저히 보장되어 누구나 순간에 친숙해지게 한다.

진정 위대한 건축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에서는 창조와 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가 못했다.》

《어머니, 어떤 사람이 대의원이 될수 있느냐?》

《위장이, 우리 나라에서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민을 위해서 누구나보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대의원으로 될수 있단다.》

《이렇게 크면 나도 대의원이 될수 있느냐?》

《될수 있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면 그때 대의원으로 선거될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나의 머리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주제35(1946)년 11월 해방된 조국에서 첫 민주선거가 진행된 때였다.

선거를 앞둔 어느날 이른 새벽 평안북도 태천땅의 어느 한 선거장 게시판에 나붙은 후보자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견잡지 못하는 한 녀인이 있었다.

이름은 김득두.

(내가 군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되다니. 그것도 너자가. 아무 한것도 없는 촌녀자에 불과한 내가...) 돌이켜보면 그는 세상에 태어나

때였다.

선거를 앞둔 어느날 이른 새벽 평안북도 태천땅의 어느 한 선거장 게시판에 나붙은 후보자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견잡지 못하는 한 녀인이 있었다.

이름은 김득두.

(내가 군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되다니. 그것도 너자가. 아무 한것도 없는 촌녀자에 불과한 내가...) 돌이켜보면 그는 세상에 태어나



본사기자 주일봉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가 못했다.》

《어머니, 어떤 사람이 대의원이 될수 있느냐?》

《위장이, 우리 나라에서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민을 위해서 누구나보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대의원으로 될수 있단다.》

《이렇게 크면 나도 대의원이 될수 있느냐?》

《될수 있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면 그때 대의원으로 선거될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나의 머리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주제35(1946)년 11월 해방된 조국에서 첫 민주선거가 진행된 때였다.

선거를 앞둔 어느날 이른 새벽 평안북도 태천땅의 어느 한 선거장 게시판에 나붙은 후보자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견잡지 못하는 한 녀인이 있었다.

이름은 김득두.

(내가 군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되다니. 그것도 너자가. 아무 한것도 없는 촌녀자에 불과한 내가...) 돌이켜보면 그는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가 못했다.》

《어머니, 어떤 사람이 대의원이 될수 있느냐?》

《위장이, 우리 나라에서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민을 위해서 누구나보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대의원으로 될수 있단다.》

《이렇게 크면 나도 대의원이 될수 있느냐?》

《될수 있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면 그때 대의원으로 선거될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나의 머리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주제35(1946)년 11월 해방된 조국에서 첫 민주선거가 진행된 때였다.

선거를 앞둔 어느날 이른 새벽 평안북도 태천땅의 어느 한 선거장 게시판에 나붙은 후보자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견잡지 못하는 한 녀인이 있었다.

이름은 김득두.

(내가 군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되다니. 그것도 너자가. 아무 한것도 없는 촌녀자에 불과한 내가...) 돌이켜보면 그는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가 못했다.》

《어머니, 어떤 사람이 대의원이 될수 있느냐?》

《위장이, 우리 나라에서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민을 위해서 누구나보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대의원으로 될수 있단다.》

《이렇게 크면 나도 대의원이 될수 있느냐?》

《될수 있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면 그때 대의원으로 선거될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나의 머리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주제35(1946)년 11월 해방된 조국에서 첫 민주선거가 진행된 때였다.

선거를 앞둔 어느날 이른 새벽 평안북도 태천땅의 어느 한 선거장 게시판에 나붙은 후보자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견잡지 못하는 한 녀인이 있었다.

이름은 김득두.

(내가 군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되다니. 그것도 너자가. 아무 한것도 없는 촌녀자에 불과한 내가...) 돌이켜보면 그는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가 못했다.》

《어머니, 어떤 사람이 대의원이 될수 있느냐?》

《위장이, 우리 나라에서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민을 위해서 누구나보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대의원으로 될수 있단다.》

《이렇게 크면 나도 대의원이 될수 있느냐?》

《될수 있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면 그때 대의원으로 선거될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나의 머리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주제35(1946)년 11월 해방된 조국에서 첫 민주선거가 진행된 때였다.

선거를 앞둔 어느날 이른 새벽 평안북도 태천땅의 어느 한 선거장 게시판에 나붙은 후보자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견잡지 못하는 한 녀인이 있었다.

이름은 김득두.

(내가 군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되다니. 그것도 너자가. 아무 한것도 없는 촌녀자에 불과한 내가...) 돌이켜보면 그는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가 못했다.》

《어머니, 어떤 사람이 대의원이 될수 있느냐?》

《위장이, 우리 나라에서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민을 위해서 누구나보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대의원으로 될수 있단다.》

《이렇게 크면 나도 대의원이 될수 있느냐?》

《될수 있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면 그때 대의원으로 선거될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나의 머리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주제35(1946)년 11월 해방된 조국에서 첫 민주선거가 진행된 때였다.

선거를 앞둔 어느날 이른 새벽 평안북도 태천땅의 어느 한 선거장 게시판에 나붙은 후보자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견잡지 못하는 한 녀인이 있었다.

이름은 김득두.

(내가 군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되다니. 그것도 너자가. 아무 한것도 없는 촌녀자에 불과한 내가...) 돌이켜보면 그는 세상에 태어나

본사기자 주일봉

두 제도에서 올려나오는 판이한 웨침

2023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공화국의 그 어디나 부글부글 끓고있고 약동과 폐기가 넘쳐나고있다.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하여 계속혁신, 연속공격 앞으로!》, 《당의 정비전략, 보강전략판철에서 이룩된 자랑찬 결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여러대의 조쇄용원추형파쇄기설치 및 1만 8 000m구간의 장거리벨트콘베아벨트교체공사 결속》, 《화학공업기지들에 더 많은 석탄을》, 《수십년래 전력생산에서 최고 실적》, 《중산투쟁, 창조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자》...

신문들에 실리는 기사제목만 보아도 창조와 기적으로 뚫어버지는 공업부문의 현실이 눈앞에 방불히 안겨온다.

공업부문의만이 아니다. 수도와 지방들에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별천지들이 연해연방 우뚝우뚝 솟아오르고있는 속에 도시와 농촌들에서 새집들이풍경이 련이어 펼쳐지고있다.

흐뜻한 농사작황을 마련한 기쁨안고 낱알산을 하늘높을줄 모르게 쌓아놓고 결산분배를 한 사회주의농촌의 모습도 만사람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었다.

날로 향상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과 자립경제의 위력을 과시하는 각종 전시회들은 또 얼마나 세인의 가슴을 경탄과 환희로 높뛰게 하고있는가.

《우리의것이 제일이다》. 이는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을 돌아본 공화국인민들속에서 올려나온 말이다.

전국의 수백개 단위가 참가하여 피복류, 신발류 등으로부터 인민생활의 세부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수백종의 제품전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자원과 기술로 만든 제품들이기에 긍지와 자부심 그토록 열렬하고 벽찬것이라.

돌켜보면 이해는 시작부터 경이적이었고 흘러온 모든 날과 달들은 그야말로 환희와 격정의 날과 달들이었다. 초대형방사포의 불뢰성으로 새해전군의 큰 문을 열어제끼는데 이어 새시대의 문명부흥을 부르는 세차레의 대규모건설착공식, 최강의 국력과 국위를 만방에 떨친 세차레의 심야열병식, 화성포의 련이어 발사와 공중과 수중에서의 다종다양한 주체병기들의 거대한 위력시위, 세상에 없는 주체조선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출현, 전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로친선을 백년대계의 전략적관계로 더욱 승화발전시켜 주신 절세위인의 로씨야연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를 실현한 특대사변...

정녕 세계정치사에 팔목할만한 변화를 일으킨 사변과 기적들로 흘러온 2023년이다.

그 빛나는 성과와 기적들을 안고 공화국은 2023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 변혁의 해로 마무리하기 위한 연말총진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온 한해 올려버진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행복한 삶을 안겨주고 무궁한 미래를 펼쳐여주는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인민의 송가이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부흥,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고 강국건설의 대업을 앞당겨올 맹세의 메아리인것이다.

그러나 피뢰지역의 현실은 이와는 너무도 판이하다.

거리와 거리들에서 볼수 있는 것은 윤석열퇴진을 부르짖는 노호한 군중의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의 물결이다.

년초부터 한해가 저물어가는 오늘까지 그칠줄 모르고 벌어지는 민심의 초물바다를 만든것은 윤석열역도자신이다.

역도와 그 폐당에 의해 경제파란은 더욱 심화되고 민생은 도란에 빠져 신음하고있다.

근로인생들이 막바지에서 헤메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도와 그 폐당은 추악한 정치적악용실현을 위한 정쟁으로 날과 달을 보내고있으며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미국상전에게 넘겨버치고있다. 지어 심나라것들의 핵오염수 방류책동을 비호두둔하면서 피뢰지역 바다까지 왜나라족속들의 핵쓰레기하수구로 만들고있다. 그런가 하면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하면서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하고 민족에게 핵합화를 들씌우려 하고있다.

하기에 피뢰지역의 각계층은 《윤석열, 너때문에 불안해 못 살겠다》고 웨치면서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지난 18일 서울에서는 《〈국회〉는 윤석열탄핵에 나서라!》의 주제로 제65차 초불집회와 시위가 전개되고 광범한 군중을 윤석열역도탄핵투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윤석열탄핵 범국민운동본부》의 결성이 선포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겨울을 윤석열(정권)의 마지막겨울로 만들자!》, 《〈국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범국민항쟁으로 종선전에 윤석열을 탄핵하자!》, 《초불민중이 힘을 합쳐 윤석열을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분노의 초물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2023년과 더불어 조선반도에 펼쳐진 판이한 이 두 현실은 정의와 진리로 빛나고 인민의 뜻으로 활렷하게 전진하고 번영하는 사회가 어디인가, 부정의와 부패로 망해가는 사회, 비인간적이고 반인민적인 사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더욱 독특히 보여주고있다.

정 광 령



— 피뢰지역에서 —



긴장격화와 핵전쟁불구름을 몰아오는 극악한 호전광들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외세와 야합하여 광란적으로 벌인 윤석열역

적페당의 반공화국전쟁대결책 등으로 올해 조선반도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격화되었다.

핵전쟁도발을 위한 불순한 모의판

새해벽두부터 윤석열역적페당은 그 무슨 미국과의 《동맹》관계설정 70년을 떠들며 상전과외의 반공화국전쟁도발을 위한 불순한 모의판을 벌여놓고 미국피뢰탄 합동훈련강화와 확장억제력제강화 등을 합하는 놀음을 벌여왔다.

라에 찾아가 안보협력을 적극화하고 비정상적으로 유지되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미국을 행하여 벌인 윤석열역도의 추태는 전쟁하수인의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낸 망동이었다.

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룹》설립, 미핵전략자산의 피뢰지역에 대한 정례적이며 가시적인 전개, 쌍방군대사이의 공조확대와 정보공유, 연합방위태세강화를 모의하고 그를 명시한 《워싱턴선언》과 《공동성명》까지 발표하였다.

윤석열역적페당은 하반기에 들어와 반공화국전쟁대결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미일피뢰 《3자공조》를 강화하는데 더욱 열을 올렸다.

지난 8월 윤석열역도가 미국에서 진행된 미일피뢰3자 수뇌회담이라는 데서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의 철저한 이행, 북의 핵 및 미사일관련 정보의 실시간공유제도의 확립, 여러 영역에서의 미일피뢰3자합동군사연습준비와 등을 모의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10월에도 윤석열역도는 서울에 거여든 미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공화국을 겨냥한 미일피뢰3자공조를 구걸해나섰으며 특히 10월중순에는 미국을 행하여 미일상전들과 머리를 맞대고 《3자공조》, 《3자협력》강화를 애걸하였다.

윤석열역도가 미일상전과 벌인 이러한 전쟁모의와 관련하여 피뢰지역의 언론들은 《(한미동맹)의 뒷에 걸린 윤석열역은 미국을 위해 서러면 화약을 등에 지고 서러도 지옥에 뛰어들겠다》

는 승미사대주의에 빠져 조선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 오고있다. 《더우기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역이 (한미동맹)은 철두철미 미국리익의 관점에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미국이 자기들을 희생하며 남조선을 구원해줄

나라가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있는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윤석열역도가 미일상전들과 벌인 불순한 전쟁모의들은 조선반도에 핵전쟁발발의 전운을 더욱 짙게 하였다.

유의 방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피뢰호전세력들은 섬나라것들을 끌어들이 미일피뢰3자공조, 《3각군사동맹》구축을 위한 실동훈련도 피논이 되어 버렸다.

지난 4월 조선동해상에서 미일침략세력과 3자련합해상훈련과 3자련합탄도미사일경보훈련을 벌인 피뢰호전광들은 지난 10월에는 미전력공격기와 미핵동력항공모함라격단을 끌어들이어 조선남해상공과 제주도 동남쪽공해상, 조선동해상공에서 3자련합공중훈련과 3자련합해상차단훈련을 벌여왔다.

광란적인 반공화국전쟁연습

반공화국전쟁연습에 들른 피뢰호전세력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초까지 남강원도 린계군일대와 경상북도 포항시, 남강원도 평창군일대에서 《적지종심 특수훈련》과 상륙훈련, 《열한지구부훈련》이라는 것을 강행하였다.

통합기동훈련, 주야간지속출격훈련, 연합상륙훈련인 《2023 쌍룡》, 연합해상특수전훈련인 《플레이 나이트》 등이 진행되었다.

반공화국전쟁대결에 환장한 피뢰호전광들은 그 이후에도 미국과 연합해상훈련, 연합해상비행비행훈련, 연합공중훈련들을 련속 벌여왔다.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기간에는 5차례에 걸쳐 역대규모의 《2023 연합동화력적멸훈련》을 강행하였다.

610여대의 무장장비와 71개 부대, 수천명의 병력이 동원된 이 전쟁연습은 공군에 의한 신제라격과 포병부대의 《대화력전》, 《불굴의 자유작전》 등 공화국에 대한 《신제공격》과 《정령》을 숙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뢰호전세력은 지난 8월에는 미국과 야합하여 《을지 프리덤 실드》(《을지 자

외세와 결탁하여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천년속적에게 제침의 문을 활짝 열어준 친화적역은 누구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페당이다.

이것이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세인이 다시금 내리는 평이며 결론이다.

문은철



얼마전 피뢰대법원이 은행 통장위조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역도의 장모에 대한 재판

을 벌여놓고 정역 1년형을 최종선고하였다고 한다.

문제의 은행통장위조사건은 역도의 장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통장의 잔고를 3 100여만US\$로 위조하여 골격한 사건이다.

2020년부터 문서위조 및 사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오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역도의 등을 대고 무마해버려던 것이 끝내 징역형으로 결속되었던 것이다.

윤석열역도는 골먹은 병어리가 되고 《대통령실》것들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뒤를 사리고있다.

그러던 어느날 《룡와대》 끝방에서는,

김건희: 아후, 또 술이야. 이진 《술통령》인지, 술합통인지 밤낮 술속에 빠져있으니. 윤석열: 또 시작됐군.

김건희: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지. 술통이나 불통고 있었어? 다야?

윤석열: 나도 그럴 생각해 내느라 술을 마시는거야. 그래도 이 술이 텅빈 내 머리에 뭔가 암시를 준단 말이야. 술대분 《리권카르텔》인지 《카르텔》인지 하는걸 생각해냈지. 《공산전제주의 세력》이라는 사건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 반대파들을 꼭 놀라놓지 않겠나.

김건희: 예그, 잘났다 잘

나와 엮어서는 문제란 말이야. 리제명에 대한 구속평장도 기각시켰지, 내가 추천한 《대법원》원장과 《헌법재판소》 소장후보자로 안된다고 인쇄끼 꼬지, 점점 우리 세상이 좁아지는 느낌이야.

김건희: 그럼 어떻게 해, 이걸 뒤집어놓지 않으면 야당것들이 《부산저축은행사건》이나 《서울-양평고속도로선변경의혹》 등은 물론이고 내 위조경력문제까지 말짱 들추어내자고 할텐데. 지금 야당것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윤석열: 야당이? 뭐래? 김건희: 당신이 《대통령》 후보시절 우리 어머니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남에게 단돈 10원 환장 피해준적이 없다》 했던것이 바로 진짜 《가짜뉴스》였다. 《국민의 힘》 대표가 《가짜뉴스》의 《사형감》이라고 하였으니 윤석열도 사형해야 하지 않겠나. 이레. 《단돈 10원》 소리는 왜 해가지구...

윤석열: 속이구 속는체하는게 정치야. 내가 그때 완강하

게 말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앉았지도 못하지. 야당것들이 정말로 믿을줄 알아. 하두 검찰의 내 아이들이 뻔뻔하게 막아주었으니 할수없이 넘어가주는척한게야. 《공정》과 《상상》이라는 풍신을 띄우고 《단돈 10원》을 뺏겨주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가 《불길한 기

운》이 몸에 물들수 있어. 윤석열: 뭐 《불길한 기운》!? 하긴 그 령감이 하라는데로 해서 랑해본건 없지. 그래 《천공스승》 말두, 당신 말두 잘 들을게. 나를 보고 《미신쟁이》라고 하든, 《꼭두각시》라고 하든 맘대로 떠들라고 해. 기본은 권력이니까. 으하하하...

김건희: (들지 않았어?) 하. 그럼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서 빨리 우리 어머니 부러 빼내. 박근혜를 봤지? 최순실을 제때에 보호해주지 못해 끝내 어떻게 되었는가를.

윤석열: 알았단니까. 당신 집일이 곧 내 일이 아니냐. 하지만 당장은 아니야. 뺏소년부터 치자. 옛 병법에 따르면 《검찰공화국》의 영원한 주인의 자리에 앉았을수 있던 말이야.

김건희: 그래그래, 불도젤처럼 밀고나가는 당신의 울독별 하나만은 인정해. 《천공스승》도 그걸 보고 당신을 내세웠으니까.

윤석열: 《천공스승》은 뭐

《무기정역도 가능한 증빙》, 《윤석열 대국민사과하라》, 《남은진 국민심판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역도는 너편네를 척 기고 또 해와나운이 나오셨다.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생기면 해외로 달아빠는것은 역대 피뢰집권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시간이 지나면 여론도 가라앉고 해외에서 뭔가 끌어들이면 민심의 이복을 돌릴수 있으리라고 타산한 모양이다. 그러다그 불도흔 민심의 심판을 모면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장모에 대한 판결은 윤석열역도의 비참한 종말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하다. 파멸의 구렁덩이로 끌려버리는 역도의 운명을 재촉하며 《룡와대》 시봉우에서 까마귀소리가 음산하게 울린다.

김정혁

윤석열역도가 야당들과 언론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사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고 한다.

이번에 임명되자는 역도가 검찰총장을 하던 때 심복노릇을 하던자이고 보수세력이 내세운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라는자와도 선루배관계라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KBS》는 피뢰내부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매체》로 알려진 언론사중의 하나이다.

이미전부터 《KBS》를 《과파방송》, 《공영방송이 아닌 민주로총방송》이라고 헐뜯어왔던 보수페당은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이 언론사의 리사회에서 야당세력들을 몰아내고 제 족속들을 동용하여 파탄수를 차지하게 만드는 등 《KBS》를 장악하기 위한 책들을 집요하게 벌려왔다.

특히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윤석열역도는 저들의 대내외정책과 무능을 비난하는 《KBS》를 눈에 든 개시처럼 여기면서 수하족들을 내몰아 《KBS》경영문제를 결코 얼마전

이전 《정권》시기 임명된 《KBS》사장 강재호 해임시킨데 이어 이번이 그 자리에 자기의 측근을 앉힌 것이다.

여기에는 《KBS》를 길들여 저들에게 부정적인 사회여론을 둘러세움으로써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누락하고 최악의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는 흥심이 깔려있다.

하기에 《KBS방송인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은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역 《KBS》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었고, 사장선출절차를 개고 《졸속임명》을 강행한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것이다. 자격미달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반발해나서고있다.

각계층속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언론길들이기》, 언론탄압에 광분하고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괴력치한 욕망에 분노한다. 언론을 완전히 틀어쥐고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수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려는 기도를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본사기자 전명진

해 날면 역도의 꼬락서니는 차마 눈뜨고 못봐줄 지경입니다.

한때의 동료였던 은인이든 심술궂은 역도의 심기가 거슬러면 단박에 먹이감이 되고 갑니다.

하루도 번지지 않고 벌리는 무지막지한 《사냥놀이》에 사회는 엉망이 되고 민생은 도란에 빠지고, 거기

각계층이 초분을 들고 일어나 풍산을 향해 돌진해 오니 망둥이 제 새끼 잡아먹듯 《국민의 힘》것들에게 까지 해보누만요.

이제는 《혁신위원회》것들을 《몰이군》으로 앞세워 불리한 선거지역으로 가든가, 불출마를 선택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역도의 변변

고싶어 몸살을 앓는 풍산깡패의 《사냥놀이》에 먹이감이 되는것을 아마 각오해야 할 겁니다.

열심히 섬겼잖아 엄지에게 먹힌 망둥이새끼신세, 매정하게 잘리를 물어다리치지 《못살겠다》 《대통령실》참모들이 묵묵히 감수할수 있겠는지는 두고봐야 할것입니다.

명백한것은 풍산깡패를 따라다니다가는 누구나 다 먹히는 신세가 된다것입니다. 그래서

민필

풍산깡패의 《사냥놀이》

에 요즘에는 빈대까지 성해 사람들속에서는 망할 정조라고 혀를 차며 주먹을 부릅뜨습니다.

공정과 료리를 란창치고 민생을 도록내는 우악스러운 꼭두개 말미암아 《정치독망》, 경제죽탕, 인권말살 등 모든것이 사멸직전에 이르렀지만 그러거나말거나 풍산깡패는 뒤를 줄출 따르는 《윤핵판》인지 뭔지 하는것들과 권주거나 부르고 회회 란락합니다.

정적적적수도, 사실을 보 또한 언론도 풍산깡패의 눈짓 한번에 피투성이가 되고 일조리와 로동권을 달라는 로조도, 먹물것을 달라는 서민들도 서울푸른 칼날세례를 받았습다.

10대소년의 풍자만화에도 발근하여 문화계를 목조르기 하지 않나, 자기에 대한 비방을는 너편네에 해간 그걸 골개한 기자를 감옥에 처넣었다고 살기등등

스러움에 이전 《몰이군》들이었던 《윤핵판》들이 거꾸로 《사냥감》이 되었습다.

실컷 써먹다가 치지가 위태롭게 되자 제상을 올려놓을 제물취급을 하니 풍산깡패의 속통머리가 어찌지 잘 알수 있습니다.

번덕번덕 리기적인 풍산깡패가 타치는대로 《사냥감》이니 심복들도 불안속에 전전공공합니다.

오죽했으면 《갈잡이출신의 아마츄어대통령》이 과연 다르다고 외신들마저 혀를 찼겠나요.

천하의 불인정한 풍산깡패의 칼날이 가닿을 다음번 《사냥감》으로는 과연 누가 될지.

《뺨를 묻을 각오》로 선거전에 뛰어드는 《대통령실》의 부나비들도 돈에 환장하고 미신에 찌든 제 너편네를 내놓고는 모조리 《사냥》하

지금 《혁신위원회》라는것이 《국민의 힘》의 이전 대외에게 다시 집안에 들어와 화목하게 살자며 추파를 던져도 그 맛을 단단히 본 이 전 대표는 코방기만 끼고있는것입니다.

제미난 꼴에 범난다고 풍산깡패의 《사냥놀이》로 제미를 보던 나머지 《성난 범》을 만났습다. 그 《범》은 매일같이 거리의 광장들에 펼쳐져 흘러가는 거대한 탄핵의 물결입니다. 풍산깡패는 갈수록 제 《몰이군》들, 보수층에게서까지 배척을 당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사냥의 끝은 명백하지 않습나. 그로록 사냥을 즐기던 풍산깡패가 거꾸로 사냥의 대상, 먹이감이 되는것입니다.

풍산깡패의 그 《뽀미진》한 《사냥놀이》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것입니다.

주광일

단평 까마귀 미역감는 령

얼마전 《국민의 힘》의 《혁신위원회》가 《4호혁신안》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당의 명예를 떨어뜨린 자》들은 레년도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추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기관은 언론들이 평하듯이 그 《4호혁신안》이라는것이 《당의 명예를 훼손시켜 당차별을 받았던자》들을 《사면》시키기로 한 《1호혁신안》과 모순된다것이다.

이런것을 두고 자가당착이라고 한다. 이미 실행한 《1호혁신안》이라는것이 병주고 약주는

식이라면 《4호혁신안》이라는것은 물에 빠진 놈 건져주는척하고 보검 빼앗는 격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국민의 힘》내부에서는 《4호혁신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이다.

《혁신위원회》가 그런 혁신안을 발표했다는것자체가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는걸 인정하는 꼴이다. 《혁신위원회》의 수명이 다됐다.》

《국민의 힘》내부는 물론 각계층속에서는 《4호혁신안》이라는것이 윤석열역도와 당지도부에 뺨박 맞은 비윤석열파들을 다음번 《국

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에서 제겨버리려는 의도밑에 내놓은것이라는 소리로 터져나오고있다고 한다.

《4호혁신안》이라는것이 《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던 자》들을 《인적쇄신》, 《혁신》의 간판을 들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에서 배제하는것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어제는 《협지출마》이니, 《회생》이니 하며 《국민의 힘》지도부와 친윤석열파, 《국민의 힘》 증진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오늘은 《후보자추천제》로 비윤석열파들의 부야통을 들군 《혁신위원회》의 《혁

신》놀음을 두고 언론들은 《보수당의 성공한 개혁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조소와 야유를 아끼지 않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국민의 힘》의 《혁신》놀음은 위기수습은 고사하고 저들의 내부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는 꼴이 되고있다.

피러지는 개싸움질로 날과 달을 보내는 보수당의 앞날이 어둡아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보수페당이 얼백낸 《혁신》을 하고 《쇄신》을 해 두 까마귀의 미역감기라는 것이 민심의 일치한 평이다. 김광혁

조선 미술 박물관을 찾아서

격동의 시대가 낳은 명화들을 보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공화국인민은 재가루가 날리던 빈터우에서 100년이 걸려도 일떠지지 못하던 미래의 계보를 짓부시며 전설속의 천리마를 타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이 시기 공화국의 화가들도 시대를 대표하고 민족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역사적사실들을 힘있는 필치로 화폭에 담았다. 격동적인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에서 김금희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연민화가가 창작한 이 그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종자를 잡아주시고 여러 차례 지도를 주시었으며 완성된 다음에는 친히 보아 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 작품입니다.》

작품은 화면전반에 떠오른 붉은 노을과 출강소리를 울리며 쇠물바가지들이 오가는듯한 창문마다의 불빛을 통하여 강철로 나라를 받들어가는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깊이있게 형상화하고있다. 그림에서 노을을 기본묘사로 한 화가는 조선화의 전통적인 물결기법과 농채화수법들을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색채가 다채로우면서도 필치가 자유분방한 명작으로 완성시켰던것이다.

일반주제화들 가운데서 우수한 성과작으로 평가되고있는 김구학화가의 작품 《갑오농민전쟁》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화가는 작품을 통하여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구호를 들고 이 땅에 기여든 섬오랑캐들을 반대하여 과감히 일떠선 전봉준농민군의 투쟁을 폭넓고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로 이글거리는 봉기자의 얼굴, 쇠창으로 왜놈을 내려찍는 농민, 농민군을 불리일으키는 지휘자 등

각각한 인물들의 성격을 바력있는 구도속에 물결기법을 위주로 예리하게 형상한 작품은 조국강토를 빼앗아려는 강도 일제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잘 나타내었다. 이밖에 공화국에 찾아오는 친선의 사절들을 환영하는 모습을 섬세하고 세련된 필치로 보여준 작품 《평화》도 조선화의 선묘기법으로 새롭게 창조된 성과작이라고 할 수 있었다. 《조선화의 전통적인 물결기법으로 밝고 희열에 찬 인간성격을 생동하게 보여준 이 작품은 어느한 나라에서 진행된 반전국제미술전람회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김금희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격동의 붓을 달리며 시대의 화폭들을 력사에 남긴 화가들의 미더운 모습을 그려보았다.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

본사기자 리철민

올해에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100여종에 달하는 도서들을 출판하여 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고매한 위인적품도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깊이있게 서술한 《불세출의 위인 김정일동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길에서》, 《사회주의수호전의 위대한 영도자》(1), 《전성세대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려》

나라가 해방되어 이역 땅에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속에는 땅국의 세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손목에 이끌려 고향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갔던 조기천도 있었다.

나라와는 설움속에 부모들의 피땀에 절은 품앗으로 이역땅에서 사범대학을 나오고 조선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친 그였다.

서정시 《두만강》으로 조국인민들과 인사를 나눈 조기천은 새 민주조선의 벽란 현실을 목격하며 붓을 달렸다. 이 시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그는 민족의 영웅만이, 불세출의 위인만이 항일대전을 승리에 이끌 수 있었음을 신장으로 느끼며 격동의 붓을 안고 백두산으로 올랐다.

장백의 줄기마다 새겨진 피어린 자욱을 전하며 승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을 우리라는 시인의 심장속에서는 용암이 솟구쳤다. 이 용암의 분출이 백두의 천출위인을 격조높이 노래하는 서사시의 머리글로 새겨졌고 서사시의 전모도 확고한 표상으로 굳



어졌다. 인민들의 심장을 세차게 틀어잡으며 세상에 나온 그날로부터 오늘날에도 표현 하나 바램이 없이 구질 하나 처절이 없이 격조높이 울려가고있는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이렇게 탄생했다. 새 조국건설시기 조기천은 서정시 《울밀대에서 부른 노래》, 서정시사시 《땅의 노래》를 비롯한 큰 형식의 시들을 창작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미래의 야수적만행을 폭로하는 서정시사시 《네거리에서》, 련시 《항쟁의 련수》 등 수많은 시들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조기천은 어느 시인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호방하고 참견과도 같이 예리하면서도 때로는 봄향기와 같이 훈훈한 서정세계를 펼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재능있는 시인이었다. 세련된 은률조성의 또 다른 개성으로 하여 그의 작품들은 이처럼 유명한 작품들로 될수 있었고 시 《휘파람》, 《문경고개》는 후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래의 가사로도 되었다. 육박의 창끝인양 고르고고른 그의 붓대는 이 땅에 물아친 전쟁의 참화속에서 더욱 예리하게 버려졌다.

불타는 산과 강, 마을과 고지를 지키면서 원수들을 쳐부시며 한목숨바쳐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의 모습, 죽음을 모르는 이 나라 인민들의 헌신 《조선의 어머니》, 《우리는 조선청년이다》와 《불타는 거리에서》, 《조선은 싸운다》와 같은 그의 피땀을 한뼘한뼘의 시들에서 시인의 주정을 타고 격조높이 터져왔다. 그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몇 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인민의 기억속에 남는 걸작들을 수 많이 창작해낸 정열에 불타는 혁명시인이었다. 본사기자

100 여종의 도서들이 출판되었다. 《과학기술인재-성공의 비결》, 《론리시지와 일화》, 《통합생산체계의 자료관리기술》, 《수산동물질병과 진단기술》을 비롯한 도서들도 출판되었다. 또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상용고려약편람》, 《실용약물편람》, 《당뇨병의 민간요법》, 《심장혈관계통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비롯한 도서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빛내고 그들의 일반적식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도서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고있다. 본사기자

의학과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 -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23》 진행 -

공화국의 과학기술전장에서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23》이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1 44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 1 060여종의 의약품, 의료기구, 건강식품, 위생용품, 보건정보기술제품들이 전시되었다.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도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와 경험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벌어진 전시회에서는 평양과 각 도에서 선별한 의료인원들의 우수한 제안들이 여러 분파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단위들사이의 교류와 경쟁을 활발히 벌리며 의학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한단계 도약한 좋은 계기로 되었다. 평양산원의 한 의료인원은 《지난 1년간 치료예방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특히 국내의 풍부한 원료자원에 의거하고 립상실전에서 효과가 뚜렷이 입증된 고려약들을 개발하여 출품하였다. 전시회에 참가하여 우리 녀성들에게 필요한 약품들을 더 쓸모있게 만들어야 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진다》라고 자기의 소감을

표현하였다. 어느한 단위의 참가자는 앞서나가는 국내약생산단위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많이 배웠으며 이것을 통하여 발전방향과 개발자료, 목적들을 확정짓었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된 품목으로는 단청색감제작기술, 칠보산전설, 고려약초가공기술과 리용용품 등이 속한다. 단청색감제작기술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유순하고 고전미나는 단청색감을 만드는 제작방법으로서 오늘날 건물유적들과 조선식건축물들의 목재를 장식하고 보호하는데 리용되고 있다. 고려약초가공기술과 리용용품은 전통적인 고려약초들의 가공기술과 치료방법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칠보산전설은 칠보산에 깃든 전설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깃들어있는 영

조선 온돌 (5) 글리빈, 그림 채대성

그는 그우에 모양새가 제가끔인 판돌(구들장)을 이를 맞춰 꼭 깔고 매개 구들장의 네 귀에 작시를 고였다. 뒤따라 검불섞음을 듬뿍 넣은 진흙을 고루 발랐다. 그사이 다른 사람들은 부엌에 부뚜막을 걸고 밖에는 굴뚝을 세웠다. 박연은 모든 공정을 빠짐없이 살피고 의문나는 점은 물어보면서 일일이 목격해 적고 그림을 그렸다. 구들장놓기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유로인은 또 한가지 지식을 알려주었다. 《구들이든 부뚜막이든 집바람벽이든 모든 흙질은 잘 이긴 찰흙을 쓰네. 그래야 마르면 든든하거든. 그런데 진흙으로 구들을 놓을 땐 흙집도 있다네. 마르면 서로 생김달 말일세. 서로 갈라지면 부뚜막이나 굴뚝, 구들이든 경우 연기가 새서 불을 때는 보람이 없고 구들새기로 바람이 들어 구들을 식혀버리구 바람벽인 경우 맥을 못추게 만드네. 이것을 막는 방법은 개

울가의 매흙을 부드러운 질감을 섞어 잘 이긴 다음 곁에 한발 혹은 두발쯤 쪽바르는걸세.》 박연은 펼쳐든 목책장우에 부지런히 붓을 달리면서 서둘러 물었다. 《그러니까 모든 찰흙흙 사뒤에는 매흙 두벌쯤 짝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까?》 유로인 《응, 그래.》 구들장놓기, 부뚜막과 굴뚝에서 손을 떼게 되자 새 집, 새 아궁이에 첫 불을 넣는 일을 하게 되었다. 아궁이에 숯가래기를 한가득 밀어넣고나서 유로인은 박연에게 불을 지피라고 일렀다. 박연은 당황했다. 《이 일이야 집주인이 아닌 내가 어떻게?... 새집의 첫 불은 복을 주는 사람이 지펴야 할 것같은데...》 유로인이 그를 안심시켰다. 《자네야말로 복이 좋은 사람이야. 두번씩이나 다 죽었다가 되살아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단단가.》 《!》 박연은 감동의 눈물을 머금고 결집에서 화로를 가져

다가 부저가락으로 불덩어리 하나를 플라 아궁의 숯가래기속에 찢어넣었다. 유로인이 조용히 한마디 했다. 《화로의 불로 아궁에 불을 지핀다. 그러구보니 언제인가 누구인지 《구들과 화로는 형제다.》고 한 뜻있는 말이 생각나누만.》 이날 밤이었다. 박연은 등잔불심지를 돌구어가며 새 목책에 구들을 놓는 묘리를 날날이 정리하였다. 그는 부록함목 첫머리에 이 고장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두고 감사의 눈물속에 격찬사술한데 이어 인간들의 품성이 아름다운 조선에서는 그들이 향유하는 풍속들도 마땅히 아름다울수밖에 없다고 뚜렷이 박아쓰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 구들놓기에는 《석구들》이라는것도 있다. 이것은 매장특대신 구들장을 돌로만 고이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방이 더 풀고 루 더운 우점을 가진다.

조선사람들은 흔히 구들에 매장목을 놓는 방법을 쓰는데 한번 손질한 후 한해 혹은 두해가 지나 가을철에 구들장을 뜯은 다음 매장목을 들어내고 새로운것으로 바꾸어놓는다. 이 형식의 목적은 두가지이다. 첫째, 나무불을 오래 때면 구들장밑에 그을음(일명 《고제》)라고도 한다.)이 들어붙어 구들장이 덜 달고 굵에는 재리가 쌓여 불길을 잘 밀거름으로 쓴다. 쟁먹고 알 먹기인셈이다. ... 그는 부록편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조선의 구들에는 자제도 특별한것이 쓰이지 않고 구조 또는 간단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도입할수 있는 방법이지만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리스의 신화에 프르메테우스가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주었다고 높이 칭송되는데 조



별지 못한다. 이때 가정주부들이 아궁이 내서 교생을 한다. 이 폐단은 이른바 《구들질》 즉 낡은 매장목을 들어내면서 구들장밑의 그을음을 긁어내치는 청소로 극복된다. 둘째, 들어버린 낡은 목은 구워지고 재가 영긴 흙이므로 질이 좋은 거름이다. 이것은 흔히 가을밭을 심을 때

새로 등록된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된 품목으로는 단청색감제작기술, 칠보산전설, 고려약초가공기술과 리용용품 등이 속한다. 단청색감제작기술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유순하고 고전미나는 단청색감을 만드는 제작방법으로서 오늘날 건물유적들과 조선식건축물들의 목재를 장

식하고 보호하는데 리용되고 있다. 고려약초가공기술과 리용용품은 전통적인 고려약초들의 가공기술과 치료방법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칠보산전설은 칠보산에 깃든 전설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깃들어있는 영

양가가 높은 특산음식인 평양비빔밥과 여러 양조기울이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번에도 새로 등록된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가 더욱 풍부하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들은 공화국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모든 것을 귀중히 여기며 살려나갈수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치와 건강

김치는 그 맛은 물론 건강에도 아주 좋은것으로 하여 세상사람들모두가 인정하는 식품으로 되고있다. 김치에는 각종 비타민류와 아미노산, 식용섬유와 알리신, 광물질 등이 들어있어 물질대사촉진, 고혈압과 동맥경화방지, 항암작용과 면역기능제고를 비롯한 여러가지 약리작용을 한다. 김치에는 소화를 돕는 젖산균과 다당류, 리그닌도 많이 들어있는데 다당류와 리그닌은 위와 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장에서 점성용액을 형성하여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추기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증에방과 치료에 좋다. 또한 식사후 포도당의 피속흡수속도를 늦추기때문에 당뇨병치료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김치는 항산화작용과 항균작용이 뛰어난 식품이다. 김치재료에 있는 비타민 A, C는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한다. 본사기자

이 속담은 불일도 모르고 그저 확하니 갔다오거나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속내도 모르고 헤뭇는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옛날 풍광음에서 펴 펼쳐진 한 시골집에서 있는 일이었다. 어느날 아침 그 집의 아버지가 퇴마루에 걸려 앉아 낮을 갈면서 《오늘은 누구든 집에 다녀와야겠는데...》 하고 혼자 자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먹으려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고양이발도 빌려야 할 가을같이네 이녀석은 어디로 갔누?》 아버지는 아들을 나무라면서 식사를 끝내자 나머지 식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저녁늦게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그때야 아들이 험쩍거리며 삼작편으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이녀석, 머리큰 녀석이 그레 하루종일 어딜 싸다니다가 이제야 오느냐?》 《아니, 아버님. 오늘 아침 장에 누구든 갔다와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소이까? 아침, 점심 다 건느구 고생한 저를 나무라시니 정말 섭섭하군요.》 《허 참! 이녀석, 그럼 간단구 말이나 할것이지, 그레 장에 가신 뭘 했느냐?》 《예? 난 그저 아버님이 누구든 갔다와야 한 다기에 그냥 갔다왔지요 뭐. ...》 《뭘라? 이런 답답이 라구야, 장에 가서 낮자루를 사야 하겠기에 한 말인데 그냥 갔다와다니. 저 참, 맹랑하군.》 《...》 본사기자

본사기자